

‘벼랑 끝’ 소상공인, 빛내서 빛 갚는다

지난해 4분기 대출잔액 715조7000억원...전년보다 2.2% 증가
대출 사업장 362만2000곳...경영난에 48만2000곳 13.3% 폐업
연체 대출금 11조3000억원...소상공인 비은행권 연체 비중 높아

소상공인들이 빛을 내서 빛을 갚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년 전보다 대출 연체금액이 대폭 상승했다. 경제성, 지속성이 미흡한 자영업자들의 전직을 위한 직업 교육, 자영업의 수준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7일 한국신용데이터가 발표한 ‘2024년 4분기 소상공인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기준 개인사업자 대출잔액은 715조7000억원으로, 전년 같은 분기(700조원) 대비 2.2% 증가했다.

은행권 대출잔액이 433조2000억원(60.5%), 비은행권은(39.5%)로 집계됐다. 특히 비은행권의 대출 잔액 규모는 꾸준히 높아지고 있는데, 업권별로 상호금융이 221조4000억원(30.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여신전문(21조9000억원·3.1%), 기타(19조7000억원·2.8%), 상호저축은행(17조1000억원·2.4%) 등 순으로 많았다.

지난해 4분기 기준 개인사업자 대출이 있는 사업장은 362만2000개로, 이 중 314만개(86.7%)는 정상 영업 중이며 48만2000개(13.3%)는 폐업했다. 대출을 떠안은 전체 사업장 10곳 중 1곳 이상이 경영난 끝에 문을 닫은 것이다.

업종별로는 카페 매출이 전분기 대비 9.5%p 줄

어 가장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커피문화’로 불릴 정도로 커피 수요가 많은 우리나라지만 먹고 살기 어려운 경제상황에 커피 소비가 대폭 줄었기 때문이다.

폐업한 사업장들의 평균 연체액은 568만원이며, 평균 대출 잔액은 6185만원으로 조사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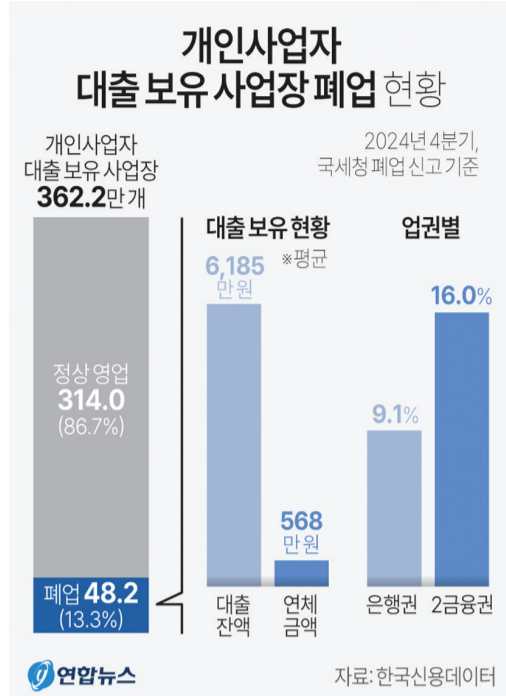
개인사업자들이 상환하지 못한 연체 대출금액 규모는 11조3000억원에 달했다. 전 분기(11조1000억원)와 전년 동분기(7조4000억원) 대비 각각 2.3%, 52.7% 늘었다.

개인사업자들의 연체 대출잔액은 비은행권이 8조9000억원(78.8%), 은행권은 2조4000억원(21.2%)으로 집계됐다.

전체 대출 대비 연체금액 비중은 기타가 9.6%로 가장 높았고, 상호저축은행(5.0%), 상호금융(2.7%), 여신전문(1.0%) 등 순이었다. 반면, 은행권의 연체금액 비중은 0.6%로 보험(0.5%)를 제외하면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이처럼 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들의 제2금융권 연체 비중이 높아지고, 연체금액도 커지고 있는 것은 코로나19 이후 대출을 버티던 자영업자들이 은행권 대출의 연체 끝에 제2금융권으로 눈을 돌렸지만, 소비침체조차 장기화되면서 이조차 연체되는 지경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실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소상공인 사업장



1곳 당 연간 매출은 1억7882만원으로 전년보다 0.57% 줄었다.

반면, 연간 이익은 4273만원으로 1년전보다 14.71% 올랐다. 하지만 매출은 축소됐는데도 자영업자들의 연간 이익이 두자릿수 증가세를 보인 것은 소비가 원활해서가 아닌 어려운 경영 상황으로 지출을 축소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한편 해당 보고서는 한국신용데이터가 개인사업자 경영관리서비스 ‘캐시노트’에 가입한 사업장 16만개를 표본 조사한 결과로 작성됐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롯데백화점 광주점 “예비 신혼부부 모십니다”

23일까지 ‘웨딩페이’ 진행
마일리지 혜택·상품권 증정 등

롯데백화점 광주점이 오는 23일까지 ‘롯데웨딩페이’ 행사를 진행한다. 롯데웨딩페이는 ‘프리미엄 웨딩의 모든 것’을 주제로, 행사 기간 중 웨딩마일리지 추가 적립, 혼수 상품권 대폭 확대 등 다양한 혜택으로 예비 신혼부부들의 눈길을 끌 계획이다.

우선 광주점은 행사 기간동안 예로부터 리빙까지 150여개 브랜드에서 ‘웨딩마일리지 추가 적립’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웨딩마일리지는 롯데웨딩멤버스 가입 후 9개월간 롯데백화점에서 구매한 금액을 적립해 누계 적립 금액의 최대 7% 상당의 롯데상품권을 증정하는 웨딩 프로모션이다.

특히 이번 웨딩페이 기간에는 브랜드에 따라 구매 금액의 최대 2배를 적립해주는 마일리지 혜택도 제공한다.

올해는 프리미엄 예물 및 혼수 준비에 필요한 리빙 상품군을 중심으로 웨딩페이 참여 브랜드 수를 전년보다 40%가량 늘려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한

다. 대표 브랜드로는 에이스, 시몬스, 템퍼, 다이스, 알레르망, 태그호이어 등이 있다.

또 ‘LG전자’와 ‘삼성전자’ 매장에서는 구매금액에 따라 웨딩마일리지 100만점을 추가 적립하는 특별 혜택을, 오는 28일까지 롯데백화점몰에서는 웨딩페이 전용 페이지를 만들어 온라인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최대 60만점의 웨딩마일리지 적립 혜택을 제공한다.

이 밖에 롯데백화점 우수고객 제도를 미리 체험할 수 있는 ‘PRE-AVENUEL’ 프로모션도 선보인다. 매년 롯데웨딩멤버스 신규 가입 회원의 30% 이상이 다음해 우수고객으로 선정되는 만큼, 웨딩마일리지 적립 구매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인 고객에게는 라운지 입장 및 다과 제공, 발트 파킹 등 일부 우수고객 혜택이 주어진다.

신현웅 롯데백화점 광주점 영업기획팀장은 “예비 신혼부부들이 가장 큰 혜택을 받고 혼수를 준비할 수 있는 롯데웨딩페이를 준비했다”며 “마일리지 더블적립 혜택과 더불어 가구 등 다양한 할인행사를 통해 행복한 결혼생활의 첫 걸음을 시작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광주·전남 수출산업 ‘칼바람’ ... 지난해보다 23.7% 감소

광주 가전제품·전남 기계류 등 부진...수입도 5.5% 줄어

지난 1월 광주·전남지역 수출이 전년 같은 달에 비해 23.7% 감소한 47억7400만 달러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수입역시 5.5% 줄어 40억3800만 달러로, 무역수지는 7억3600만 달러의 흑자를 보였다. 하지만 이는 수출과 수입 감소에 따른 것으로, 지역 수출산업의 위축이 본격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광주는 가전제품, 수송장비, 타이어, 전남은 기계류, 화공품, 석유제품 등의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

광주본부세관이 17일 공개한 ‘2025년 1월 광주·전남지역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광주지역 1월 수

출은 전년 동월 대비 22.0% 감소한 11억6100만 달러, 수입은 11.5% 증가한 5억9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품목별로 보면 수출은 기계류(19.4%)만 유일하게 증가했으며, 가전제품(49.9%), 수송장비(26.4%), 타이어(19.4%), 반도체(4.4%) 등이 부진을 면치 못했다. 수입은 반도체(19.5%), 고무(31.3%), 기계류(57.8%)가 증가했고, 가전제품(16.1%), 화공품(26.3%)은 감소했다.

지역별로 미국(28.9%), 동남아(7.3%), EU(30.4%), 중남미(37.1%), 중국(2.5%) 등 거의

전역에서 수출이 모두 줄었다.

전남지역 1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24.0% 감소한 36억1300만 달러, 수입은 7.5% 줄어든 34억4800만 달러를 기록했다. 품목별로 보면 수출은 기계류(69.2%), 화공품(33.6%), 석유제품(31.0%), 수송장비(16.2%), 철강제품(3.5%) 등 전반적으로 모두 줄었다. 수입은 화공품(33.8%)이 증가했으나, 석탄(45.3%), 철강(11.1%), 석유제품(5.8%), 원유(1.5%) 등이 감소했다. 지역별로 보면 수출은 EU(3.6%)·일본(4.9%)만 약간 증가했으며, 동남아(19.8%)·중국(25.1%)·미국(34.1%)은 큰 폭으로 줄었다.

/유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테크노파크, 지역과학문화 역량강화사업 평가 우수 등급

전남도민과 함께하는 전남형 과학문화 생태계 구축 공로

전남테크노파크 산하 전남과학문화거점센터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추진하는 ‘2024년 지역과학문화 역량강화사업’ 연차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았다.

이번 평가는 전국 12개 지역과학문화거점센터를 대상으로 사업계획, 추진체계 및 성과, 예산 집행 등 다양한 항목을 종합적으로 공개 심사방식으로 진행됐다.

전남과학문화거점센터는 전남의 특화 사업인 에너지를 이용해 과학 축전과 대표 프로그램을 운영·발굴하면서 지역의 이미지 제고와 과학 기술, 관광 문화를 활성화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

았다.

오익현 전남테크노파크 원장은 “전남 도민들이 성장·발전하고 있는 과학기술문화의 혜택을 모두 향유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며 “전남형 과학문화 생태계를 조성해 향후 전남의 과학 문화를 단계적으로 향상시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유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여성 소기업 마케팅 지원

10개 기업 최대 900만원
경쟁력 강화·소득증대 기대

전남도는 여성 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5년 여성 소기업 마케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여성 소기업 마케팅 지원사업은 여성 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소득증대를 위해 2011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올해 10개 기업을 선정하고 기업당 최대 900만원을 지원한다.

전남 사업장 중 여성이 대표자인 상시 고용인력 5인 미만인 기업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 기업 신청을 받아 서류 심사와 현장 심사를 거쳐 지원 대

상 기업을 최종 선정한다. 지원 분야는 제품 디자인 개선 지원, 광고·홍보·마케팅 지원, 두 개 분야다. 사업 참여를 바라는 기업은 오는 21일까지 전남도 여성정책관실로 신청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남도와 시군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에는 사업 기간 중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 사업 진행 상황 점검과 애로사항 청취를 통해 각 기업에 적시에 필요한 피드백을 제시한다.

유미자 전남도 여성가족정책관은 “이번 사업을 통해 여성 기업의 판로 개척과 매출 증대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많은 여성 소기업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기회인 만큼, 지원사업에 적극적인 관심 바란다”고 말했다.

여성 소기업 마케팅 지원사업은 지난해 10개 기업을 선정·지원했는데, 74개 기업이 신청할 만큼 인기가 높다. 2024년 선정된 완도 농업회사법인 이름(대표 배미진)의 경우 새 포장지를 개발해 제품 이미지가 상승, 2023년 같은 기간보다 30%의 매출 증가세를 보이는 등 지원사업이 기업 경영에 실질적 도움이 되고 있다.

/유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지원 정책집 발간

육성자금·역량강화 교육 등 수록

전남신용보증재단(이하 전남신보)이 최근 2025년 전남도내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는 지원 정책의 내용을 담은 ‘한 눈에 보는 전남도 소상공인 지원 정책집’을 발간했다. 올해 정책집에는 전남신보를 비롯한 전남도 및 22개 시·군과 도내 출자·출연기관이 참여해 총 113개의 다양한 전라남도 내 소상공인 지원정책이 수록됐다.

주요 지원정책으로는 전라남도 육성자금, 찾아가는 금융버스 가드림, 역량강화 교육, 공공·상생 배달앱 서비스 등이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은 각 시·군 및 기관별 지원정책을 한눈에 확인하고 필요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강근 이사장은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이 중요한 만큼, 이번 정책집이 도내 소상공인에게 유용한 길잡이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돕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지원방안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정책집은 도내 22개 시·군청, 출자·출연기관 및 주요 소상공인 직능단체에 배포될 예정이다.

/유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농어촌공사 ‘선임대후매도사업’ 신청자 모집

청년 농업인 28일까지

한국농어촌공사가 오는 28일까지 ‘선임대후매도사업’ 1차 신청자를 모집한다.

선임대후매도사업은 청년 농업인이 농촌 정착 후 희망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가 매입한 뒤, 청년 농업인에게 매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최대 30년 조건부 장기 임차하며, 원리금 상환이 끝난 뒤 소유권을 청년 농업인에게 이전에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지원하게 된다.

지원 대상은 만 39세 이하 청년 농업인이며, 신청자 중 우선순위에 따라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대상 지역은 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전국이

다. 대상 농지는 1000㎡ 이상 농업진흥지역 내 논과 밭, 과수원,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인 경우 경지 정리, 밭 기반정비가 완료된 농지에 한해 신청 가능하다. 다만, 한국농어촌공사의 공공임대용 매입비축사업의 매입 상한 단가를 초과하는 농지는 사업 대상 농지에 포함되지 않는다.

신청 자격과 지원 농지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농지은행 포털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신청서는 농지 소재지의 관할 한국농어촌공사 지사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한편, 한국농어촌공사는 오는 4월경 ‘선임대후매도사업’ 2차 신청자 모집을 진행해 청년 농업인의 농지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이마트24, 문체부 ‘로컬100’ 스탬프 투어 동참

광주 동구 남도달밤야시장 등

이마트24가 올해 말까지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주관 지역활성화 프로젝트인 ‘로컬100’에 스탬프 투어로 동참한다.

로컬100은 지역소멸 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문체부가 지난 2023년부터 지역 고유의 문화매력을 찾고, 지역 문화를 널리 알리기 위해 문화명소, 콘텐츠, 명인 등을 선정한 것으로, 이마트24는 선정된 지역 소재 점포를 통해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한다.

로컬100 선정지는 광주시 동구 남도달밤야시장과 전남 담양군 3대 명품 숲을 비롯해, 전국 각 지역 15곳이다. 고객들은 대상 지역 점포에 방문한 뒤 1000원 이상 물품을 구매 후 이마트24 모바일 앱 통합 바코드를 통해 스캔하면 스탬프 적립이 가능하다.

스탬프는 5개, 10개, 15개를 적립할 때마다 경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대상 지역 내에서는 1회만 참여 가능하다.



행사 경품으로는 ‘로컬100’ 홍보대사인 인기 만화작가 ‘키즈니’가 디자인한 투어 기념 배지 3종과 이마트24 매장에서 사용 가능한 할인 쿠폰 등이 있다.

나경은 이마트24 영업마케팅팀 파트너는 “이번 스탬프투어 이벤트를 통해 전국 곳곳의 명소와 축제를 즐기면서, 인근 이마트24 매장에 방문해 다양한 혜택을 누리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610.42 (+19.37)
↑ 코스닥	768.48 (+12.16)
↑ 금리(국고채 3년)	2.623 (+0.012)
환율(USD)	1443.50 (0.00)
<small>(오후 5시 15분 기준)</small>	